

중국 AI 스타트업 상장 러쉬는 지속 중



Hana China Weekly | 2026.9.11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딥시크(비상장): 과창판 IPO 준비 착수, 연내 상장 절차 개시 목표

- 9/9 SCMP에 따르면 딥시크가 CITIC증권 등 4개 주관사를 선정하며 상하이 과창판 IPO 준비에 착수. 올해 중 상장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Pre-IPO 라운드는 5,000억위안 밸류에이션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콩 IPO를 추진 중인 문샷 AI(기업가치 500억달러 목표)와 함께 AI 스타트업 상장 러시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모습.
- 9/10에는 SCMP가 문샷 AI가 홍콩과 상하이 과창판 이중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7월 홍콩 IPO 절차를 논의한 뒤 본토 추가 상장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홍콩 AI 종목의 부진한 수익률과 홍콩 상장 대기 기업 과밀이 이중 상장 검토의 배경으로 지목. 다만 같은 날 과창판일보에는 소식통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엇갈린 보도가 이어짐. 문샷AI는 이미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해 이르면 2027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며, 상장 전 마지막 펀딩에서 밸류 약 500억달러를 거둬내고 ARR은 연말 약 10억달러에 이를 전망.
- 한편, 9/10 딥시크는 V4.1 Flash 모델을 공식 출시. 5,520억 파라미터 MoE에 비대칭 구조(입력 활성 80억/출력 160억)를 적용해 기존 모델인 V4 Pro의 성능을 넘어섰음. KV 캐시를 크게 압축해 이전 세대 대비 HBM 수요를 4분의 1, SSD 수요를 8분의 1로 낮춤. 캐시 적중 비용 비중이 큰 에이전트 작업의 사용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최대 60% 인하하였음. 텐센트와 OpenCode가 공식 파트너로 전량 연동됐고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 공개. AI 모델 경쟁 심화 우려에 9/10 미니맥스(0100.HK, -9.0%), Z.AI (2513.HK, -10.3%) 주가는 급락

엔프레임(688801.SH): 9월 11일 과창판 상장 이후 오전장 179% 급등 마감

- 9/11 과창판에 공모가 142.18위안으로 상장. 상장 첫날 오전장 396.61위안으로 178.95% 급등 마감. 무어스레드와 메타X, 비렌테크에 이어 국산 GPU '4소룡'의 마지막 주자로 자본시장에 합류. 2026년 1~9월 매출을 23억~30억위안(YoY +325.78~455.36%)으로 예고하였으나 순손실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힘. 텐센트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최대 외부 투자자이자 2025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

BYD(1211.HK): 해외 판매량 가이드스 200만대로 추가 상향

- 9/7 BYD는 올해 해외 판매량 가이드스를 190~200만대로 추가 상향. 이는 1월 제시한 130만대 및 3월 상향한 150만대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준. 8월 누적 해외 판매량은 116만대로 YoY +86% 증가했으며, 경영진은 운송 능력이 충분했다면 판매량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 생산능력도 지속 확대 중으로 인도네시아 공장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으며, 헝가리 공장은 12월 조립 생산을 시작할 예정. 브라질 공장은 연간 30만대 생산능력을 목표로 가동 중.

AI 소프트웨어

딥시크(비상장): 과장반 IPO 준비 착수, 연내 상장 절차 개시 목표

- 9/9 SCMP에 따르면 딥시크가 CITIC증권 등 4개 주관사를 선정하며 STAR마켓 IPO 준비에 착수. 올해 중 상장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Pre-IPO 라운드는 5,000억위안 밸류에이션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콩 IPO를 추진 중인 문샷 AI(기업가치 500억달러 목표)와 함께 AI 스타트업 상장 러시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모습.
- 9/10 V4.1 Flash 모델을 공식 출시, 새 모델 구조 시리즈의 최소 크기 모델로 네이티브 멀티모달 시각 이해 능력을 갖춤. 5,520억 파라미터 MoE에 비대칭 구조(입력 활성 80억/출력 160억)를 적용해 기존 모델인 V4 Pro의 성능을 넘어섰음. KV 캐시를 크게 압축해 이전 세대 대비 HBM 수요를 4분의 1, SSD 수요를 8분의 1로 낮춤. 캐시 적중 비용 비중이 큰 에이전트 작업의 사용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최대 60% 인하하였음. 텐센트와 OpenCode가 공식 파트너로 전략 연동됐고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 공개. AI 모델 경쟁 심화 우려에 9/10 미니맥스(0100.HK, -9.0%), Z.AI (2513.HK, -10.3%) 주가는 급락
- 9/8 하니스(Harness) 팀이 9/8 약 150명 규모의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발표. 채용 분야는 서버 개발과 에이전트 탄력컴퓨팅 연구개발에 집중됐으며, AI 모델 연구직은 포함되지 않음. 서버 개발 직군은 모델 연구 플랫폼과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API,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포괄하고, 탄력 컴퓨팅 직군은 에이전트 작업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 배분과 시스템 개발을 담당. 데이터와 훈련·평가 작업, 에이전트 실행 환경 및 사용자 요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백엔드 인프라를 전면 확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빌리빌리(9626.HK): 7억달러 규모 만기 전환사채 발행

- 9/4 총 7억달러 규모의 2031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 이 중 2억달러를 텐센트가 자회사 Huang River를 통해 다른 투자자와 동일 조건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5억달러는 기관 대상으로 발행됨. 초기 전환가는 Z류(Class Z) 보통주당 약 155.79홍콩달러로 9/4 종가 대비 약 28.3% 할증. 조달금은 자사주 매입과 AI 기반 성장에 투입할 방침. 동시에 텐센트가 보유 지분 일부 약 2,637만주, 약 4억달러를 매각하는 구조로 텐센트가 지분을 팔면서 전환사채는 사는 형태.

Z.AI(2513.HK): GLM-5.3-Flash 가격, 기존 주력 모델의 10분의 1

- 9/9 8월 말 오픈소스화한 GLM-5.3-Flash의 가격을 자사 주력 모델인 GLM-5.3의 10분의 1로 책정. 딥시크 V4-Flash 비수기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 Artificial Analysis 종합 지능지수 57점으로 클로드 오퍼스 4.8과 동급이면서 오퍼스의 약 40분의 1 가격이라는 점이 부각. 다만 캐시 적중 시 입력 단가(0.23위안)는 딥시크 V4-Flash 비수기(0.05위안)보다 높아, 컨텍스트 반복률이 높은 코딩 에이전트 등 헤비 유저에게는 딥시크가 여전히 저렴하다는 평가도 병존. 온라인 추론은 10만 장 이상의 국산 칩 클러스터가 담당하며, 저비용·고성능·국산 칩 구동을 앞세워 저가 경쟁을 주도하는 모습.

알리바바(9988.HK/BABA.US): 알리 클라우드 QoderWake 최신 버전 출시

- 9/9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QoderWake 최신 버전을 출시. AI 디지털 직원을 경쟁사 오피스 플랫폼에서도 구동할 수 있게 개방. 한 줄 설명만으로 원하는 역할의 AI 워크를 생성해 알리바바 덩톡뿐 아니라 바이트댄스 페이수, 텐센트 위컴 등 중국 3대 업무 협업 플랫폼에서 작동하며, 공유 문서·일정·그룹채팅의 맥락을 자율적으로 파악해 실행함. 4월 출시 후 약 10만 개 디지털 직원이 배치돼 최근 3개월간 약 200만 건의 실제 업무를 수행.

AI S/W: 맥쿼리 아시아, Z.AI와 미니맥스 2030년까지 적자 지속 전망

- 9/8 SCMP에 따르면 맥쿼리 아시아가 Z.AI와 미니맥스가 매출 급증에도 2030년까지 적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 프런티어 AI 모델의 훈련과 구동에 드는 컴퓨팅 비용이 막대한 데다, 미국의 엔비디아 첨단 칩 규제에 중국의 컴퓨팅 부족이 글로벌 평균보다 2~3배 심각한 점을 근거로 제시. 다만 보수적 손익 전망과 별개로 ARR 성장은 빠를 것으로 분석하며 Z.AI의 연말 ARR을 회사 목표(약 24억달러)보다 높은 약 30억달러로 추정. 업계가 초기 고성장 단계를 지나면서 순손실 대신 ARR 등 새로운 밸류에이션 지표를 찾는 국면.

문샷 AI(비상장): 홍콩과 상하이 과장판 이중 상장 검토 중이라는 루머 확산

- 9/10 SCMP가 문샷 AI가 홍콩과 상하이 과장판 이중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7월 홍콩 IPO 절차를 논의한 뒤 본토 추가 상장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홍콩 AI 종목의 부진한 수익률과 홍콩 상장 대기 기업 과밀이 이중 상장 검토의 배경으로 지목. 다만 같은 날 커칭반일보에는 소식통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엇갈린 보도가 이어짐. 문샷AI는 이미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해 이르면 2027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며, 상장 전 마지막 편당에서 밸류 약 500억달러를 겨냥하고 ARR은 연말 약 10억달러에 이를 전망.

텐센트(0700.HK):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위챗 계정 원격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 발견

- 9/9 SCMP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Calif는 AI를 활용해 위챗 계정을 원격으로 탈취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 공격자가 음성 통화를 걸기만 하면 이용자가 전화를 받거나 별도의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계정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로클릭' 방식으로, Calif는 이를 활용한 실험용 공격 프로그램 'WeWorm'을 일주일여 만에 개발. 텐센트는 7월 해당 취약점을 통보받은 뒤 8월 말 서버 측 패치를 완료했으며, 실제 공격에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AI 인프라/반도체

CXMT(688825.SH): 배당안 검토 착수 예정

- 9/7 상반기 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절한 시기에 배당안 검토에 착수할 방침을 밝힘. 상반기 글로벌 D램 업황 개선과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나 현재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 투자 단계에 있어 필요 CapEx를 우선 보장하는 전제 아래 점진적으로 주주환원을 추진하고 수익성이 지속 강화되면 배당을 검토할 예정.

AI: 트럼프 정부, 미국산 GPU 우회 사용 규제 법안 9월 초안 공개 예정

- 미국이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을 막자 중국 AI 기업들은 규제 대상이 아닌 동남아에 칩을 우선 반입해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자국에서 원격 접속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CNBC에 따르면 문샷 AI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의 클라우드 설비로 규제 대상 엔비디아 칩의 연산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목. 미국 수출 규제가 칩의 물리적 이전만 규율하고 원격 접속은 포함하지 않아 현행 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노린 것.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과 싱가포르의 서버를 통해 중국 AI 기업에 엔비디아 GPU 컴퓨팅 시간을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규정을 준비 중이며 9월 초안이 공개될 예정.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대 기업 매출 QoQ +11.5% 증가

- 9/9 TrendForce에 따르면 2Q26 글로벌 상위 10대 파운드리 합산 매출이 QoQ 11.5% 늘어난 약 534.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AI HPC 선단공정 공급 부족과 소비 공급망의 선제 재고 확보가 성장을 견인. TSMC가 매출 약 402억달러(QoQ +12.1%)로 점유율 72.5%로 1위를 지킨 가운데, SMIC(688981.SH)는 2분기 매출이 QoQ +20% 늘어 30억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점유율 5.4%로 3위를 기록. SMIC의 성장은 PC·노트북 중심 소비 공급망의 선제 재고 확보, AI 주변 IC·서버 네트워킹 주문 증가, 메모리 전면 부족에 따른 NAND-NOR 플래시 위탁 수요·가격 상승이 배경.

선전과기(000021.SZ): 첨단 패키징/테스트에 18.5억위안 투자 예정

- 9/9 자회사 페이둔과기가 고급 메모리 패키징과 테스트 생산능력 확충에 총 18.5억위안을 투자한다고 공시. 12.2억위안으로 신규 자회사와 공장을 세워 전통 패키징 월 9만 장과 2.5D 첨단 패키징 월 1만 장 규모를 확보하고, 6.3억위안으로 2.5D-3DS 첨단 패키징 R&D 라인을 구축해 각 월 100장 생산능력을 추가,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페이둔과기는 CXMT의 최대 위탁 패키징 협력사로 DRAM 위탁 물량의 60~70%를 담당하며 국내 HBM3를 규모 양산하는 소수 업체로 CXMT의 IPO·증설과 D램 업황 반등에 맞춰 국산 메모리 후공정 자립을 강화하는 행보.

팹리스: 무어스레드 락업 해제 영향에 밸류에이션 부담 확산

- 금주 비렌테크(6082.HK)/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주가는 각각 9.9%, 16.3% 하락. 9/7 무어스레드의 IPO 락업 물량 해제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중국 GPU 종목 전반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급 우려가 확산. 특히 일루바타코어엑스는 1H26 매출이 9.5억위안(YoY +191.6%)으로 증가했으나, 저마진 반도체 부품 재판매와 재고평가손실 영향으로 GPM이 50.1%에서 17.2%로 급락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

엔프레임(688801.SH): 9월 11일 과창반 상장 이후 오전장 179% 급등 마감

- 9/11 과창판에 공모가 142.18위안으로 상장. 상장 첫날 오전장 396.61위안으로 178.95% 급등 마감.
- 무어스레드와 메타X, 비렌테크에 이어 국산 GPU '4소룡'의 마지막 주자로 자본시장에 합류. 2026년 1~9월 매출을 23억~30억위안(YoY +325.78~455.36%)으로 예고하였으나 순손실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힘. 텐센트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최대 외부 투자자이자 2025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

중지위창(300308.SZ): 골드만삭스, 상승 여력 200% 이상의 긍정적 전망 제시

- 9/8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제시하며 상승 여력을 200% 이상으로 전망. 1.6T 광모듈 양산 가속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경쟁력을 근거로 2026년과 2027년 순이익 전망치를 블룸버그 컨센서스보다 각각 25%, 42% 높게 제시. 여기에 최대 80억위안 규모 자사주를 신속히 현금 매입하는 계획이 더해지며 시가총액이 다시 1조위안대로 복귀할 수 있다고 분석.

화웨이(비상장)

'타우 스케일링 법칙' 통해 발열 문제 해결한 최신 기린 칩 Mate XT 2에 탑재 예정

- 9/5 반도체 사업부 사장 허팅보가 타우 스케일링 법칙 기반 신규 칩 아키텍처가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는 연구 논문을 ChinaXiv에 공개. 곧 출시될 기린 2026 스마트폰 칩의 핵심 기술 장벽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 로직 회로를 수직 적층하면 열 병목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기린 2026 칩이 전작보다 오히려 낮은 온도로 구동되면서 제곱밀리미터당 트랜지스터 밀도는 55% 높이고 일부 핵심 작업에서 전력 소비는 최대 66% 절감.
- 9/7 광저우에서 3단 폴더블폰 Mate XT 2를 공개하며 최신 기린 9050 Pro 칩을 탑재, 로직 폴딩 기술을 처음 적용한 고성능 칩. 고성능 프로세서 최초로 LogicFolding 기술을 적용해 단일 칩 내 논리 유닛을 수직 적층하고 연결 경로를 단축한 것이 특징. 앞서 공개한 '타우 스케일링 법칙' 논문의 수직 적층 아키텍처가 실제 플래그십 칩으로 구현된 것으로 공정 미세화가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적층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우회 경로. Mate 40 이후 6년 만에 플래그십 행사에서 신규 Kirin 칩을 공개한 것.

답시크 추론용 모델, 화웨이 AI 가속기 최소 16만개 도입 계획

- 9/4 블룸버그에 따르면, 답시크가 모델 추론용으로 화웨이 차세대 AI 가속기 Ascend 950DT를 최소 16만 개 도입할 계획으로 전해지며 국산화 기대가 강화. 9/7 A주 반도체 장비가 +4.7% 오르는 등 섹터 상승에 일조. 내몽골 우란차부 1GW급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으로 주문 총액은 약 25.6억달러. 다만 추론 전용으로 훈련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의존하며, 부품 부족으로 인도에 1년 이상 소요 전망.

말레이시아 정부, 화웨이 어센드 910C 도입 검토

- 9/7 말레이시아 정부가 20억링깃(약 5억달러) 규모의 소버린 AI 프로젝트에 화웨이의 어센드 910C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국영 통신사 텔레콤말레이시아가 사업 운영을 맡을 예정이나, 도입 규모와 최종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미국은 어센드 910C 사용이 자국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만큼, 실제 도입 시 양국 간 기술·안보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 채택이 확정되면 외국 정부가 국가 AI 인프라에 중국산 AI 가속기를 공식 선택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화웨이의 동남아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음.

화웨이, 중국산 DUV 국산화 주도

- 9/8 FT는 화웨이가 중국산 DUV 노광장비 국산화를 주도하며 반도체 자립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 화웨이는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광장비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중국 장비업체들이 SMIC 등 주요 파운드리와 계약을 맺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짐. 상하이 소재 스타트업 위량성은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중국 첫 첨단 DUV 장비를 공동 개발했으며 해당 장비가 SMIC와 화웨이 자체 생산라인에서 시험 중. 위량성은 연내 DUV 장비 12대 생산을 계획하나 ASML 수준 도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 노광장비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최대 병목으로, 미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제조사와 자국 장비업체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는 관측.

업계 최초 7.2Tbps NPO 기술 공개

- 9/10 SCMP에 따르면 화웨이는 선전 국제광전자박람회에서 업계 최초라고 주장하는 7.2Tbps NPO 모듈(초고속 광통신 장치)을 공개. 채널당 200Gbps로 작동하는 36개 채널을 결합해 총 7.2Tbps의 대역폭을 구현했으며, 브로드컴이 CPO용으로 공개한 6.4Tbps 광엔진과 함께 차세대 고밀도 광연결 기술로 평가됨. AI 클러스터가 수천 개의 프로세서로 확장되면서 기존 구리 배선이 대역폭·전송거리·전력 효율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자, 광학 부품을 네트워크 스위칭 칩 가까이에 배치해 전기 연결 거리를 줄이고 신호 손실과 전력 소모를 낮추는 구조. 화웨이는 제품 개발 단계에 본격 진입했으며, 공급망과 생산 체계가 구축되는 대로 양산이 가능하다고 언급.

산업재

장비광섬(601869.CH): 골드만삭스 광모듈 시장 광섬유 기업 장비광섬 추가 강세

- 9/7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광모듈 시장 업황 전망 대폭 상향. 2026/27/28년 광모듈 시장 규모는 각각 68/131/149억달러로 전망,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33%/81%/115% 상향한 수준. 해당 소식으로 9/7 장비광섬 주가 6% 상승 마감.

에너지

ESS: 중국 ESS 단기 공급과잉 우려 제기, 신규 ESS 공장 승인 일시 중단

- 중국 ESS 수요의 중장기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9/7 중국이 신규 ESS 공장에 대한 승인을 일시 중단. 이번 조치는 ESS 산업의 공급과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 아직 착공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지만, 이미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도. 중국 ESS 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과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중국 주요 태양광 업체들도 패널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공급과잉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면서 ESS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해 옴.

로보틱스

로봇: 세계 최초 로봇 안내건 공개

- 9/4 중국 최대 방산기업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산하 항저우 Zhiyuan Research Institute는 세계 최초 로봇 안내건 Xiaoyuan 공개. 이는 평지에서는 바퀴를 이용해 이동하고 계단에서는 4개의 다리를 활용하는 구조로,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을 지원하도록 설계.

전기차

BYD(1211.HK): 해외 판매량 가이드선스 200만대로 추가 상향

- 9/7 BYD는 올해 해외 판매량 가이드선스를 190~200만대로 추가 상향. 이는 1월 제시한 130만대 및 3월 상향한 150만대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준. 8월 누적 해외 판매량은 116만대로 YoY +86% 증가했으며, 경영진은 운송 능력이 충분했다면 판매량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 생산능력도 지속 확대 중으로 인도네시아 공장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으며, 헝가리 공장은 12월 조립 생산을 시작할 예정. 브라질 공장은 연간 30만대 생산능력을 목표로 가동 중.

샤오미(1810.HK): Sky Nomad 출시 4분만에 확정 주문 1만대

- 9/7 샤오미 Sky Nomad 라인업이 출시 4분 만에 확정 주문 1만대 이상을 확보.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 전 일정 물량을 선제적으로 생산했으며, 초기 물량의 인도 기간은 1~5주. 라인업은 5인승 N70 Pro/Max, 7인승 N90 Max, 캠핑 수요층을 겨냥한 5인승 N90 Max Explorer Edition으로 구성. 판매가는 N70 Pro 20.9만원, N70 Max 23.9만원, N90 Max 26.9만원, Explorer Edition 29.9만원. N70 Max와 N90 Max의 정식 출시 가격은 7/30 공개된 사전판매 가격 대비 각각 약 8%, 10% 인하된 수준.

리오토(LI.US): 자체 개발 배터리로 CATL 배터리 대체

- 9/7 리오토는 CATL 배터리 대신 자체 개발 배터리 적용을 전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4Q26 출시 예정인 Li i6에는 자체 개발한 5C 배터리와 Mach 주행보조 칩을 탑재할 예정. 리오토는 2020년부터 배터리 셀 자체 개발을 시작했으며, 2025년 자체 개발 배터리 생산을 위해 Sunwoda와 50:50 합작사를 설립. 리오토는 2Q26 자동차 마진이 전년 동기 19.4%에서 9.4%로 하락한 가운데,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 중.

전기차: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 미의회에 중국산 자동차 미국 시장 연구 진입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9/3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미 의회에 연말까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 해당 단체는 GM·Ford·Toyota·Volkswagen·현대차·Honda·Stellantis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소비/우주

샤오미(1810.HK): 자체 칩 개발에 500억위안 투자 계획

- 9/7 가을 발표회에서 레이첼이 칩 자체 개발에 10년간 500억위안을 투자하는 계획 아래 현재까지 210억위안(약 29억달러)을 실제 투입했다고 밝힘. 자체 칩 쉬안제 O3는 이미 상용화됐고, O100과 D100은 내년 상반기 상용화 예정. 추격을 시작한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으로 반도체 자립 의지를 재확인.

레노버(0992.HK): 인텔의 PC용 CPU 가격 인상에 추가 급락

- 9/8 인텔이 10월 5일 PC용 CPU 가격을 약 10%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원가 부담 우려가 부각되며 레노버 주가는 장중 한때 -11%까지 급락한 뒤 -6%대로 하락 마감. 인텔의 이번 인상은 2025년 말 이후 세 번째로 7월 일부 소비자·서버 CPU 인상에 이은 것. PC 수요가 2027년 소폭 둔화될 전망에도 저마진 시장점유 전략을 접고 수익성 개선을 우선하는 행보로 메모리·PCB 등 부품가 동반 상승과 맞물려 완제품 업체인 레노버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CPU와 D램, SSD가 노트북 원가의 약 68%를 차지해 원가 전가 압력이 상당한 상황.

귀주모태주(600519.SH): 마오타이 소매가 올해 6번째 가격 인상

- 9/8 직영점 페이텐 마오타이(53도 500ml) 소매가를 1,753위안에서 1,766위안으로 13위안 인상, 지난달 조정 이후 한 달 만이자 연내 여섯 번째 가격 조정. 킬로그램 마오타이와 우싱 등 5개 제품이 함께 올랐으나 일부 제품은 소폭 내려 품목별로 엇갈림. 직영점만 조정하고 마오타이 앱 가격(1,639위안)은 그대로 뒤 양 채널 격차가 127위안으로 확대. 직영점은 1인당 하루 1박스·연 5박스 구매 제한을 유지 중. 중추절과 국경절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판매가 개선될지 주목되는 상황.

아너(비상장): 차세대 단말 OS 'MagicOS 11'을 공개 예정

- 9/15 아너가 선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단말 OS 'MagicOS 11'을 공개할 예정. 업계 최초로 시스템급 Agent Harness를 상용화한 스마트폰 OS로 새 YOYO 에이전트가 주동 서비스와 자동 실행을 결합해 최대 수백 단계의 장기 작업을 수행하고 100여 종 서비스를 폐쇄 루프로 처리할 수 있음. 앱 단위가 아닌 시스템 단위로 에이전트를 구현해 자연어 한마디로 복잡한 다단계 작업을 대신 처리하며, Magic9 시리즈에 첫 탑재될 예정. 스마트폰 시가 음성비서에서 자동 실행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

하이디라오(6862.HK): 지배주주 장전 2.6억주 매각, 개인 자금 수요로 확인

- 9/9 지배주주 계열이 장전 블록딜로 약 2.59억 주(총주식의 4.65%)를 주당 10.62홍콩달러에 매각. 9/8 종가 대비 약 6.7% 할인해 27.5억 홍콩달러를 조달. 창업자 겸 회장 장용의 부인 수평이 매각 주체로 "순전히 개인 자금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 장용이 5월 주당 13.39홍콩달러에 지분을 늘린 지 얼마 안 돼 나온 매각이라 시장에 의외로 받아들여졌고,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역외신탁 과세 신규 규정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시사. 소식에 주가는 장중 -12%까지 밀려 4년여 만의 최저치를 찍고 9/9 하이디라오 주가는 -9.1% 하락 마감.

상업우주: 베이징, 상업우주를 핵심 육성 사업으로 지정

- 베이징시가 '15차 5개년 첨단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 상업우주를 핵심 육성 산업으로 지정. 재사용 발사체와 대추력 엔진 기술 확보, 위성과 핵심 부품 양산·공급망 강화, 국가 위성망 구축 참여 등을 과제로 제시. 앞서 랜드스페이스의 주춤회수 성공에 이어 정책 모멘텀이 더해지며, 중국위성 등 관련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메이탄(3690.HK): 폴더블 신제품, 즉시 배송 플랫폼에서 구매 가능

- 메이투안 즉시 배송 플랫폼에 '메이투안 산텐 신제품' 전용 구역을 신설, 애플이 곧 내놓을 신제품과 화웨이·샤오미가 최근 공개한 폴더블 신제품이 이 플랫폼에서 동시 첫 판매될 예정. 전국 브랜드 직영·인증 매장을 연결해 최단 30분 배송을 제공하며, 즉시 배송이 단순 생필품을 넘어 프리미엄 디지털 신제품의 첫 출시 채널로 확장되는 모습.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4.4	20.4	86.4	484.7	62.6	9,022.5	76.7	49,162.6	0.0	2026-11-19
기가디바이스(603986.CH)	2.4	22.8	43.7	184.4	29.6	606.2	44.1	618.4	11.1	2026-10-28
캠브리콘(688256.CH)	(2.6)	109.4	37.7	170.5	115.6	193.2	99.0	190.9	0.0	2026-10-19
해광정보(688041.CH)	(4.6)	117.2	17.6	56.4	45.5	81.7	63.0	81.8	0.1	2026-10-15
비렌테크(6082.HK)	(9.9)	-	(0.7)	141.5	272.5	적지	흑자	적지	(0.2)	2027-03-30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16.3)	-	(9.7)	183.0	157.7	적지	흑자	적지	(3.1)	2027-03-30
북방화창(002371.CH)	0.1	61.6	17.3	27.6	31.7	37.8	49.5	36.7	0.0	2026-10-30
AMEC(688012.CH)	(0.4)	71.1	16.1	36.8	39.6	107.5	20.9	171.4	0.0	2026-10-29
SMIC(0981.HK)	(5.6)	46.0	5.9	26.8	19.9	106.8	28.4	100.1	(1.1)	2026-11-13
JCET(600584.CH)	1.1	53.0	7.4	12.8	15.0	46.5	42.2	56.6	2.7	2026-10-23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4.1	59.6	23.4	39.2	51.2	78.8	45.0	75.5	10.2	2026-10-30
빅토리자이언트(300476.CH)	4.8	26.4	26.5	65.9	79.3	89.7	94.6	73.1	(0.6)	2026-10-27
중지위창(300308.CH)	9.3	31.8	62.2	172.0	89.0	202.9	89.3	185.5	0.9	2026-10-30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0.3	21.4	31.2	63.3	37.4	74.0	34.0	71.0	0.0	2026-10-29
즈푸AI(2513.HK)	(23.8)	-	(0.6)	719.8	200.1	적지	적지	적지	(0.1)	2027-03-31
알리바바(BABA.US)	(4.1)	16.9	8.2	10.4	12.4	(15.4)	47.8	109.8	(0.6)	2026-11-25
텐센트(0700.HK)	(3.9)	12.4	18.7	9.9	9.4	2.6	6.0	24.2	(0.1)	2026-11-13
바이두(BIDU.US)	(8.9)	15.8	4.2	(1.4)	6.2	100.5	22.6	(14.8)	(0.3)	2026-11-18
레노버(0992.HK)	(0.4)	15.9	36.8	28.0	17.8	55.0	74.2	71.8	0.0	2026-11-16
샤오미(1810.HK)	(8.9)	22.2	8.8	(4.2)	18.6	(36.1)	22.9	(19.4)	(0.3)	2026-11-16
유비테크(9880.HK)	(5.9)	-	(4.6)	96.3	45.7	적지	흑자	적지	0.1	2027-03-31
BYD(1211.HK)	(7.7)	15.8	14.6	11.7	11.2	18.6	28.5	28.4	(0.4)	2026-10-30
CATL(300750.CH/3750.HK)	(3.7)	16.3	24.7	46.5	22.2	32.9	24.1	39.3	0.0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2.8)	13.0	24.3	2.3	20.7	3.7	24.1	6.4	0.0	2026-10-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4.8)	20.4	16.5	31.6	26.6	56.3	39.1	50.0	(0.4)	2026-10-29
허사이테크(HSAI.US)	(7.9)	38.4	5.7	42.4	41.1	16.0	70.6	2.1	0.0	2026-11-11
중천과기(600522.CH)	5.0	17.9	17.1	23.6	15.3	162.1	41.3	121.6	0.0	2026-10-27
사원전기(002028.CH)	(8.1)	25.7	22.9	31.2	30.4	31.6	38.2	30.7	(0.6)	2026-10-19
동방전기(600875.CH)	2.1	18.4	10.1	11.4	9.1	32.8	26.7	26.6	0.0	2026-10-30
평균	(3.3)	35.6	19.7	93.9	52.9	444.3	46.1	2,052.0	0.6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